

---

-1학년 공개 프로필 링크: [☰ 1학년 공개용-에스마일 I. 시프](#)

## 공개란

트리거/소재 주의: 가상의 소수자에 대한 소극적 차별적 발화, 미스젠더링, 민족적 박해 및 폭력의 언급, 가족(양육자)의 위험

---

##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또 만나 반갑습니다! (\*~\*)♡ 외관란/성격란은 완전히 재작성되었으며, 이외에 추가 및 변동사항은 색 변화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 1. 캐릭터

정체성-1:

-여성 정체성 스펙트럼의 젠더퀴어로 정체화 중간에 있습니다. 캐릭터가 이런 기색을 대화 중 보일 수 있으나 케이입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반박한다, 별 생각 없이 넘긴다 등...) 이런 식의 반응, 역극 중의 가벼운 비의도적 미스젠더링(예: 남성 호칭으로 지칭) 등은 별도로 조율을 요하지 않으나, 해당 사항을 “오너”는 인지하고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7학년 사이 완전히 여성으로 정체화를 선언하며, 이 시점부터 미스젠더링은 상대 캐릭터의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조율 및 컨택을 부탁드립니다. (정체화 시기가 예정보다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정체성-2:

-팔레스타인 출신의 가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오너 성향상, 러닝 중 캐릭터의 이야기는 영국 마법사 세계 내 영국인이자 마법사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서사를 주 소재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커뮤니티는 차별과 혐오, 구조적 박해와 폭력 등을 소재로 다루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굳이 삭제하지 않고자 합니다.

+“인성질” 관련:

-본 기간 캐릭터가 매우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며, 타인에게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언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선을 넘는 언행의 경우 (제가 걱정돼서) 선조율을 드릴 예정이나, 캐릭터가 아닌 오너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DM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반응하는 언어적 폭력, 가벼운 물리적 폭력(주먹다짐이나 가벼운 저주) 등은 편의상 조율 없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언” 관련

-에스마일은 예언 관련 능력 전혀 없습니다!! 하는 말은 대체로 막 벌는 것이고… 상대 캐릭터의 공개 설정, 공개된 세계관 설정 등은 가끔 은근슬쩍 참고하지만 맞아떨어질 경우 1) 캐릭터가 논리적으로 관찰하거나 유추한 결과 2) 우연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서사” 등은 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캐어필 요소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오너

전반적 성향:

-자체 그림 로그가 불가능한 글러입니다. 그림 로그는 지원, 커미션을 따로 구해 와야 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방식으로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꽤 자주 치는 편입니다…) 그림 로그를 주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점 감안하고 쳐 달라는 의미입니다!!

-일정상 한번에 오랜 시간 접속이 어렵습니다. 타임라인 대화도 자주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템 1~2일 정도로 드문드문 이어지는 중~장문 역극 주력입니다. (단문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화:

-일상적이고 가벼운 대화부터 좀더 무겁고 진지한 대화까지 꺼리지 않습니다. 대립, 수위 범위 내의 언어/물리적 폭력 등 모두 가능하나 필요시 조율 DM을 찾아갑니다. 반대로도 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시점은 별도 언질이 없는 한 중간에 스진 등이 있더라도 “시작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구분되는 시점과 소재라면 한 캐릭터와 대화 3~4개 정도까지는 끊지 않고 잇는 편입니다. 오너님 측에서는 편히 끊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토리가 진행되었더라도, 이전 대화가 별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잇거나 끝내려 해 보았으나… 멘션을 천천히 하루종일 미는 성향이라 상대 오너분이 접률이 낮거나 / 1일 2~3시간 접속 후 다음날 접속하시는 성향인 등의 경우 기간 종료까지 대화를 거의 못해보는 경우가 생겨서….

++유사한 맥락으로 1~2일에 한번 접속하시는 오너님의 경우 한 번 답멘이 왔을 때 1회에 한해 우선적으로 답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시간순으로 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캐릭터와 최대한 큰 편차 없이 교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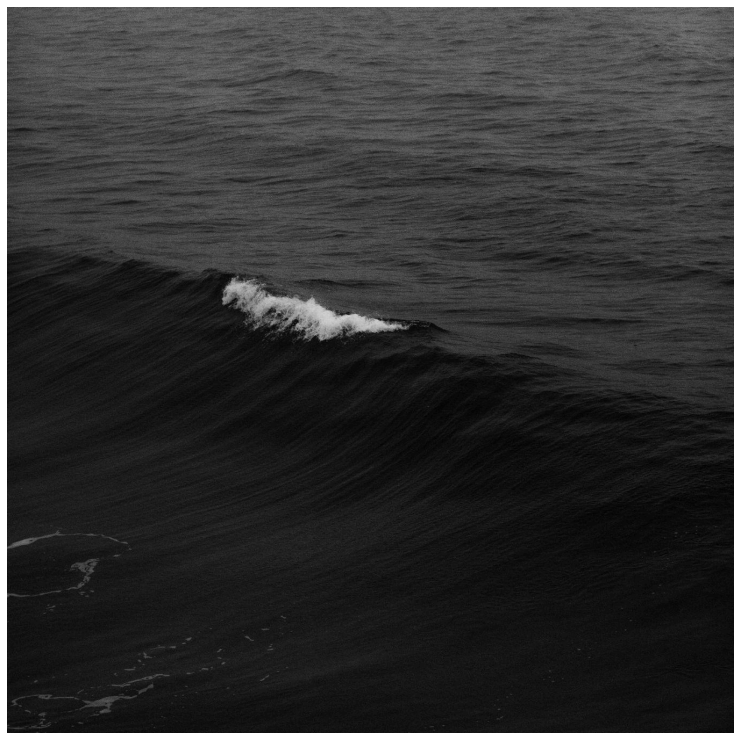
---

### [물외物外의 무뢰無賴]

-아뇨, 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아시면서.”**

외관



출처: Unsplash, Nathan Dumlao



<http://neka.cc/composer/13531>

### 1974.07.18. 예언자 일보 14면-“맹랑한 메타모프마구스와의 밀담”

인턴 기자 팔라이 C. 메도스

“메타모프마구스”란 무엇인가? 물약이나 지팡이가 없이도 스스로의 외관을 성별, 나이까지도 전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우리 마법 세계에서조차 흔치 않은 현상이다. 대체로 메타모프마구스는 두 세대, 혹은 저명한 학자 C. O. 벨에 따르면 세 세대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경향이 있다. (기존 메타모프마구스에게서 유전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제외한 수치이다.)

따라서 필자가 지난 주 다이애건 앨리에서 현재 호그와트 3학년을 마친 에스미엘 I. 시프 군의 거듭되는 요청 끝에 인터뷰를 수락한 것은, 기존 이번 호에 계획되었던 “늑대인간-혼혈”과의 인터뷰를 기대하고 있었던 독자들에게는 불운이겠으나 조금 독특한 흥밋거리를 찾는 무료한 독자들에게는 소소한 행운이겠다.

당시 에스미엘 군은 “플로리언 포테스큐의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복장을 제외하고는 30대 중반 남성인 포테스큐 씨의 모습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필자는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포테스큐와 그것을 건네받아 입에 넣는 시프 군을 번갈아 보며 양측 모두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머글 태생으로서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혹시나 가까운 조상 중에 사실 본인이 모르는 마녀나 마법사가 있지는 않을까 질문하자 시프 군은 필자에게 “혹시 순혈주의자이신지” 반문했다.

예언자 일보의 충실한 독자들도 알고 있듯이, 필자 또한 “혼혈”이다. 필자의 외증조부는 머글 태생 마법사이며, 외조모는 혼혈 마법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주위에 머글 태생 마법사 지인과 정보원들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언자 일보의 오랜 독자들이라면 익히 알 것이다. 따라서 시프 군의 이 주장은 놀랄 만한 능력과는 다르게, 시프 군 본인은 아직 혈통과 혈통주의라는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유감스러운 가능성을 드러내겠다.

이어 앞에 있는 실제 인물을 보지 않고도 따라할 수 있는지 묻자 시프 군은 현 신임 총리, 오디우스 킬맨 경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답했다. 주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끼고 필자는 정중히 다른 모습을 취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이후 필자 본인의 얼굴이 탁자 건너편에서 마주 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필자의 당혹한 기색을 보고 이 짓궂은 악동은 주머니에서 깃펜과 양피지를 꺼내 과장되게 기사를 쓰는 흉내를 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인터뷰를 중지할 수밖에는 없었으나, 시프 군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성품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시프 군은 어떤 모습을 할 때에도 가는 녹색의 리본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모든 독자가 아시다시피, 녹색은 슬리데린의 상징색이며, 이는 “어둠의 마왕”이 졸업한 기숙사이기도 하다. 우연일까? 어떤 암묵적 신호일까? 현재로서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감히 말하건대 정신적 성숙함에 비해 다소 과분한 특기를 지닌 소년이 올바른 훈육과 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어떻게 성장할지 우려를 표할 수밖에는 없음을 발견했다.

## 이름

에스마일 이브라힘 시프 | Esmail Ibrahim Seif | إسماعيل إبراهيم سيف

~~별명은 에시, 에스(Es), 스마일/리, “나레이터”, 에스브Esob... 등.~~

## 나이 | 학년

14세 | 4학년

## 국적

## 영국

-5세 때 영국 국적 취득.

## 혈통

머글 태생

## 기숙사

래번클로

## 키 | 체형

160?cm | 조금 마른 체형

-본인은 160cm라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실제로는 156.5cm이다.)

## 성별/젠더

-패싱 성별은 당연하게도 당시에 “모방”하고 있는 상대의 것. 호칭Pronoun은 마음대로 불러도 된다고 답한다. (하지만 부쩍 남성 호칭에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기색을 보인다.) 기숙사는 아직까지는 남성 기숙사를 사용.

## 성격

경박한 / 불온한 / 은둔하는

동급생-아, 그 가식적인 말만 하는 광대 말이죠?  
/경박한-실없는, 극적인, 조야한

...의외로, 평판과 다르게... 직접 대화해 보면 들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하고 잠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때로는 어조나 걷는 방식, 웃는 모습까지 성의껏 흉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첫마디로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오늘 침대에서 어느 쪽으로 일어나셨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런, 왼쪽이 아니었기를 바라보죠!” 같은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는 설명도 없이 획 가버리는 사람치고는 말이다. 하지만 래번클로라는 인간들이 다들 괴짜같고 돌발적인 면이 하나쯤은 있곤 하지 않은가. 여전히 진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란하게 떠벌거리지만 어쨌든 이 어두운 시대에 웃음거리 하나쯤 더해져서 나쁠 것은 없지 않겠는가... 하고 잠시 느낄 수도 있겠다.

*후배-너, 너무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불온한-심술궂은, 악의적인, 냉소하는**

그 웃음은 어딘가 비열한 데가 있다. 누군가는 잔인하다고도 표현하고, 누군가는 냉혹하다고도 표현할 방식으로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날의 타겟을 정한다. 무분별하고 방종하면서도 동시에 집요하고 정확하다. 한번 정하면 놓치지 않는다. 상대가 화를 내며 지팡이나 주먹을 들거나 더 나쁘게는 울기 시작해도 예외가 되지는 못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음울한 데가 있다. 단순히 아무 신랄하고 어두운 말이나 지껄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신뢰 부족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같은 증상으로, 가장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었다. 그리고 설마, 하고 생각했던 잠시의 희망을 비웃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질투했다.

*교수-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나마 수업에는 제때 나오니 다행이죠.*

**/은둔하는-내향적인, 고립된, 폐쇄적인**

2학년 크리스마스 즈음의 어느 날 이후... 다음 해 봄까지 대부분의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고, 이후에는 돌연 다시 예전처럼 밝고 쾌활한 태도로 돌아오는 듯했다. 실제로는 하던 취미와 관심사 대부분을 끊었고, 누구와도 호의적인 말을 나누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수업 시간에 깃펜을 주워달라고 하면 응하는 것 정도가 최대. (그리고 깃펜의 갈라진 모양이 불길하다면서 부엉이를 잘 돌보라고 중얼거린다.)

## 지팡이

사시나무 | 유니콘의 털 | 12 ½ 인치 | 휘지 않는(Unbending)

지팡이의 주인에게 뛰어난 결투가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 천명하는 사시나무. 희고 곁이 고운 최상급의 목재로 만들어진 지팡이는 긴 상아를 닮았다.\* 에스마일에 따르면 소나무로 된 다른 지팡이와 이 지팡이 중 어느 것이 그와 더 잘 맞는지에 대해 가게 주인과 그와 지팡이들 모두가 오래 고민했으며, 결국에는 동전을 던져 결정했다고 한다. 사실인지는 불명.

\*일부 위자딩 월드(구 포터모어) 간접 인용.

## 선택과목

점술, 머글학

+마법 생물 돌보기를 청강하겠다 신청해 놓고 수업은 가끔씩만 들어온다.

-여봐, 그것 아냐? 오늘 수업 내용이 유니콘이라고 하네!  
-(...!)

## 기타

### 1. 가족 및 배경

어머니는 기자. 아버지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5살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했으나, 어머니가 직업상의 사유로 여러 차례 협박 및 살해 시도를 겪으면서 (졸업한 대학이 있는 국가인) 영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부모님과 에스마일, 아기였던 여동생들까지 함께 런던으로 이주했다. 조부모와 이모 사촌들 등 친지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거주한다.

각각 2살, 4살 터울인 동생들을 매우 아끼며 성격적으로는 어머니, 취미나 외관(본인 왈)은 아버지를 닮았다.

+1학년 말, 여동생 둘 중 나이가 많은 쪽인 “누르Noor 이브라힘 시프”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호그와트로부터 입학 편지가 도착했으며, 1973년 가을 그 해의 유일한 머글 태생 슬리데린으로 입학했다. 순수혈통들과 무리 없이 어울리는 편이며, 에스마일과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

++1973년 10월, 어머니가 중동으로 다시 떠났다.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요르단 등지를 오가며 4차 중동전쟁과 그 여파를 취재하고 있다고 한다. 연락은 잘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재 10살인 막내 여동생 다니아와 아버지 이브라힘만이 남아 런던의 집을 지키고 있다.

## 2. "나레이터"

-자신이 행하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로 나레이션하는 버릇이 있다. 객관적 서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제법 주관적이며, 기분 나쁘다거나 시끄럽다고 해도 오랜 습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목소리는, 온통 가려진 얼굴에서 흘러나오면 순간 의외라는 인상을 주는 중간 정도 톤의 미성. 표정이나 입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말할 때 발음이 유독 또박또박하다.

### 2-1. "카멜레온"/"코미디언"/"선지자"

"카멜레온":

-메타모프마구스. 그러나 능력을 제어하지 못해 "영향을 받은" 사람의 외관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취하며 살아왔다. 예시로 수업 중에 교수에게 집중할 경우 교수의 외관으로 변해 있는 식. (수업에 집중하는 일은 드물지만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

-2학년 재학 도중 "사고"로 공개된 장소에서 커피와 선글라스가 벗겨지면서 메타모프마구스라는 사실이 전교에 알려졌다. 이후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되었으며, 한동안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교류하려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외관으로 목격된 적은 없다.

"코미디언":

-해당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은 여전히 제어하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후부터 타인의 외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말투, 성격, 습관 등까지 과장되게 "모방"하며 조롱하는 버릇이 생겼다. 마법 세계의 유명 인사, 정치인 등부터 호그와트의 교직원, 동급생과 선후배까지 한 번 정한 대상을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종일씩 모방하고는 한다. 당연히도 상대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으며, 상대의 민감한 약점 등까지 집요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갈등이 잦다.

"선지자":

-3학년 점술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취미로 “예언”을 하고 다닌다. 물론 실제 점술이나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로 상대를 기분 째짤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 사이비가 늘 그렇듯 대체로 틀리지만 이따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 기억되고는 한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컨셉으로 조화롭게 묶어 내는 기예를 보이고 있다. 익숙한 얼굴에서 익숙하지 않은 눈빛이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신과 당신 주변인에게 닥쳐올 최악의 미래를 흘리듯 말하는 모습은 다소 무언가가 상대에게 빙의되었다는 섬뜩함을 느끼게 하므로….

### 3. 기타 학교 생활

-2학년 중반 이후 실질적 교우관계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동등하게 낮은 점수를 받는다. 유일하게 A 이상을 받는 과목은 선택과목인 머글학과 점술, 변신술(간신히 A를 받는다.).

-3학년 이후 교내 퀴디치 시험 중계를 맡고 있다. 에스마일의 평판과 별개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경기의 중계가 정확하며 입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다.

-3학년 시점 창립된 “코미디 클럽”의 회장. 가입 조건을 머글 태생, 래번클로, 3학년, 메타모프마구스로 내걸었다. 따라서 회원은 본인밖에 없다. 보통 클럽 활동이라면서 혼자 어딘가 틀어박혀 있다.

### 3. 기타

-호/불호

호: “모방”, 농담 연구하기, 사람 관찰하기, 기분나쁜 예언 하기

불호: 폭력, 전쟁, 순혈주의, 타인, 본인, 세상

-생일: 8월 1일. 탄생화: 적양귀비, 꽃말: 위로

-왼손잡이다.

-아랍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 가능하다. 영어를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액센트가 있다.

## 소지품

얇은 녹색 리본, 생각나는 것을 적어놓는 작은 수첩, 점술용 카드 등

## 관계

\*대체로 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 4.1. 적대관계

**㉮** 자세한 내용은 [주단태/인간관계/적대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단태가 적대하는 인물이 약 40명이라 이 문서가 따로 생성되었다.

### [에디스 T. 애스턴-전 꺼지라고 했지 다시 오라고 안 했는데요]

“유니콘이라고 하면 제가 냉큼 갈 줄 아십니까? ……”

1학년 때의 내기는 에스마일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으로 끝났고, 내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늘 지는 기분이다. 집요하게 에스마일의 걸을 지키는 몇몇 위인 중 하나.

### [가이 버트랜드-수없이 많은 계단]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서로 노래를 추천받거나 레코드 판을 선물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의 인연을 이어가는 나쁘지 않은 사이였다. 그러니 “재미있지 않은 장난”을 해도 얼마간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법이다. 오러인 어머니라거나.

### [세실 브라이언트-만일 내가 이 서약을 어긴다면]

“이상주의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세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언젠가…”

레아: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활발하고, 퀴치치를 좋아하며, 그럼에도 스킵이다. 에스마일: 현실주의적이고, 레아를 위해 경기를 녹화하고, 때로 비열하다. 편지 수 통에 걸친 설득 끝에 레아는 호그와트를 포기했고, 이를 알게 된 세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 [카일 클라크-관계명]

“한마디”

내용

### [P.E.A. 디센트-비단 생쥐와 누더기 고양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거의 누구보다도 먼저, 엔야 “헤이즈”는 에스마일의 비밀을 기어이 알아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선망하고 질투했으며, 이후 퍼진 소문에 대해 에스마일은 엔야를 의심하지만 물증은 없다. 하지만 감히 손을 대기에는 너무 먼 대상이다… 아마도.

### [힐데가르트 E. 마치-Relationship\_Unnamed]

“제가 반짝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동지관계는 완전히 끊났다. 진실도 아닌 괴소문에 대해 추궁하며 붙잡을 때까지는 복구할 여지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가득한 복도에서 얼굴을 노출시킨 것은 주위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 에스마일의 첫 번째 얼굴은 힐데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거의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다.

### [윌리엄 플레이페어-경기Play는 공정Fair하게]

“하지만 전 선수가 아니니까요!”

윌리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1학년 방학 집에 초대해 언제든 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적대와 빈정거림만이 돌아오니까. 하지만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핀도르 팀이 경기할 때 눈치를 딱 칠 수 있을 만큼만 윌리엄에게 편파적으로 중계하는 것은 그대로이다.

### [우디 윈디 우드워드-그런 설정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다음 기회에!”

2학년 크리스마스, 잠시 은둔이 있었어요~ 시절. 순진하게 인형들을 들고 다가온 우디와 놀아주면서 에스마일은 역설적으로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익혔다. “세계관”에 포함되기 위해 에스마일은 따로 인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요즘은 놀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

### [발레리 헤일-바늘 천 개를 삼키더라도]

“당신이 헛되이 죽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함께하자는 손을 쳐냈으니, 상대의 실망과 분노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 정도로 오만하거나 순진하지는 않다.) 하지만 마왕과 동급으로 놓고 바라볼 것까지는... 없지 않나? 현시점에는 (상기 내용과는 상관없는, 평범한 “모방” 문제로) 한바탕 머리채를 잡은 뒤 서로 절대로 신경쓰지 않는 평범한 적대 관계에 가깝다. 아버지가 가끔 “리시안셔스네 자매들” 이야기를 하기는 해도...

### [철 딜루티 린드버그-조금 맵고 조금 시고 (달콤하기도 하고)]

“메타모프마구스에게도 초상권이 적용될까요?”

그것은 어떤 질투에 가까운가? 사려 깊고 자상하면서 에스마일의 쿠퍼예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부모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혹은 오히려 어떤 동정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든, 현 시점 유난히 철을 목표물로 삼고 철인 척 사고를 치거나, 성적 등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하고는 한다.

### [레이먼드 아서 메르체-한 박자 빠르게, 설원 위 신록의 레치타티보]

“...단체 티셔츠 디자인 말인데요,”

햇살이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지는 못해도, 하늘을 향해 얼굴을 잠시 들게 할 정도는 되었다. 거의 유일하게 에스마일이 아직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 텅 빈 연습실에서 가끔 드럼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소개 멘트를 몰래 침삭해 주거나 한다. ...3학년 종료 전에 해 놓은 소리가 있는데, 정말로 이뤄질 줄은 몰랐다.

**[요나스 알렉산드로브나 미슈스티나-관계명]**

“한마디”

내용

**[아이작 나디르-관계명]**

“한마디”

내용

**[줄리아 델피니 라이네케-관계명]**

“한마디”

내용

**[멜로디 실버하트-관계명]**

“한마디”

내용

**[아일라 프레이저-관계명]**

“한마디”

내용

**[아들레이드 헤이즐턴-관계명]**

“한마디”

내용

**[프러드 허니컷-당신이 나를 바라보면 나도 당신을]**

“...글쎄요, “왜” 금성을 조심해야 할까요?”

씨를 뿌린 것이 레아이고 수확한 것이 힐데라면 그걸로 빵을 구운 사람은 프러드이겠다. 은유를 집어치우고 말하자면 에스마일이 메타모프마구스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지는 데 프러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뜻. 이후 유독 집요하게 프러드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실제 점술과 맞지 않는 엉터리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는 또 에스마일을 추궁하곤 한다.

**[헨 Y. 홉킨스-부조리에 관한 시론]**

“당신은, 당신은 저를 이해하시죠, 그렇지요?”

세상은, 과연 싸울(무너뜨릴) 가치가 있는가? 아직 설득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부조리에 대한 논쟁은 충실히 이어 가던 중 3학년 초, 세실의 여동생 레아의 입학 건에서 관계가 한번 위태해졌던 적이 있었다. 결국 갈라서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에스마일이 부쩍 불안해하는 기색이 더해졌다.

**[핀갈 모이레 모레이-관계명]**

“한마디”

내용

**[레아 세네카 윈필드-관계명]**

“한마디”

내용

**[주디스 A. 캐리엇-관계명]**

“한마디”

내용

**[타톨랑 하펜사이터-관계명]**

“한마디”

내용

**[루드비크 칼리노프스키-관계명]**

“한마디”

내용

**[임판데 엔젤버트 쿠말로-관계명]**

“한마디”

내용

**[이디스 L. 머레이-관계명]**

“한마디”

내용

**[유진 클라이드 로즈웰-관계명]**

“한마디”

내용

---

*Then they go through Hellas and gather the leaders together.*  
*-〈The Epic Cycle〉, attributed to Stasinus of Cyprus*